

사람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神)이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생명의 신이고 마귀신은 사망의 신입니다. 신학대학교의 교수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분별을 하지도 못하고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생명의 신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신을 죽여 버리는 마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들 속에 있는 마귀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맡처럼 타고 이리저리 물고 다니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주체영이 하나님이었는데 마귀영이 아담과 해와의 눈을 통해서 아담과 해와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아 마귀 육에다가 뒤눕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을 맡처럼 타고 있으면서 '이제 그대로' 마귀가 아담과 해와의 주체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피가 마귀피가 절반인 사람의 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주체영이 되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동물의 왕이 되는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해와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어느 과학자가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어느 신학박사가 이런 걸 알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걸 절대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창조력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표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 것도 역시

창조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절반이 하나님의 피가 있고 마귀의 피가 또 절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마귀의 조종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인간들이 성경을 쓸 때에도 마귀의 신이 조종한대로 쓴 거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쓸 때에 간간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마귀가 한눈 팔며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간히 성경에 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이사가 선지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기독교에서는 알 수 없으며 여기 승리제단에 와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자세히 알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하나님이 옛세 동안 일을 하시고 이래되는 날 쉬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호와와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했으니가 짝을 찾아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하는 두 말씀을 짝을 맞춰서 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루가 천 년이면 옛세 동안 일을 한다고 했으니가 하나님이 육천 년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 처음



구세주 호희성님

에 들어가니 해와 주님께서 일꾼이 온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한편 밀실에 있는 식구들은 일꾼이 온다니가 상당히 반가워했습니다. 일꾼이 오니까 일꾼만 일을 하고 자신들은 일을 안하고 놀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이긴자가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해와 이긴자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꾼이라고 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지 이 세상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하고 애길 하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에는 너희들도 일을 해야 돼 아시겠어? 그래서 전부 따라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지계를 짚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 네 다발씩 크게 만들어서 지계에다 짚어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짚어지고 내려올 때에 이 사람이 아카시아 나무 밑동에 걸려 넘어져서 산 벼랑에서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계를 짚어지고 구르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굴러 굴러서 저 산 밑에까지 굴러내려가노라니까 이제 역시 아카시아 나무 자른 그 빠른 칼날 같이 솟아 있는 그러한 나무 끝에 정경이 같은데 찔릴까 안찔릴까? 찔리죠. 그래서 막 피가 팔팔 쏟아지니까 급히 런닝셔츠를 벗어서 그 피 쏟아지는 곳을 통하여 나무를 짚어지고 내려 왔던 것입니다. 밀실이라고 하는 데는 힘들다고 해서 쉴 수가 없고 또 일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도망가면 지옥이야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걸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대로 매일 같이 그 중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단 몇일 간 나오면 지루해도 안 지루해요? 몇일 간 나오면 지루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겁니다.

제단을 하루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6개월이 지연된다고 그랬죠? 하루 빠지면 6개

체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죽을 몸입니다. 그 죽을 몸이 죽지않을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 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서 끝내 하나님이 되고 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지는 정도가 되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단에서 여러분들을 꼭 훑어만 보고 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날이 빨리 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루어지는 방법을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웃어야 이루어지고 웃어야 여러분들의 피가 맑아진다고 초창기부터 말씀했죠? 이상구박사가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와서 T림과구가 조성 돼가지고 무슨 병도 다 낫는다고 그랬죠? 그 말은 이미 일찍이 이 사람이 23 년전에 말했던 거죠? 웃어야 병이 낫고 웃어야 건강해지고 웃어야 영생하게 된다. 그랬죠? 이상구 박사는 이 사람이 말한 다음 뒤늦게 와서 흉내내는 꼴이 된 거죠?

사람이 바로 신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사람이 신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시편 82 편 6절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이 세상에 신이 몇 종류가 있는 지, 생명의 신과 사망의 신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라고 부를 게 누구일까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2,3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명 즉 2명이나 3명이 모여서 예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의 역사입니다

이 영생의 역사가 급히 이루어질까요,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질까요?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해야 그게 바로 정상적인 논리죠? 그래요 안그래요? 영생의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완속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대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단번에 어떻게 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저항하는 세력 즉 원수인 마귀세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마귀를 없애버리면서 이 영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한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대로 점차 죽음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조금씩 조금씩 없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전멸되면 이 땅위에서 죽음을 눈뜨고 볼 수 있을까요?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야 진짜지 않! 하고서 안 죽는다면 그건 가짜야.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순리대로 '이제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조리 있는 말이면서 이치가 맞는 말을 해야 그래야 진정한 거예요.*

2003년 8월 4일 말씀 중에서

조희성님의 발자취

또 다시 시작된 몰매와 죽음의 위협 속 포로생활

약소국 국민이 느끼는 비애를 온몸으로 느끼며 개 돼지처럼 취급받다

신양리형무소 안에는 이 사람이 직접 포로로 잡았던 인민군 수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들어가니 많은 포로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서 치안대장인 당신이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물어왔다. 이 사람은 그저 그렇게 되었노라고 답답하게 답하였다.

그러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에게 잡혀서 들어온 인민군 포로들은 포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서 이 사람을 담요로 덮어 씌우고 때리며 발로 짓밟기 시작하였다. 형무소 안에서 온갖 수모와 구타를 당하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되었다.

이질로 무척 고생하다

며칠 있으니 신양리형무소가 포로들로 넘쳐나자 동양방직 공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식사를 삶은 밀을 한 주먹만큼만 주식(主食)으로 주었다. 매일같이 그걸 먹으니 체력이 크게 떨어져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만 항문이 막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하다 자신

도 모르게 수용소 내의 길바닥에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어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어떤 국군장교가 그 광경을 보고 주머니에서 하얀 알약(다이아징)을 꺼내 입 안에 두서너 알 넣어주고 갔다. 한참 후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 온 전신이 설사로 인해 퐁 벵박이 되어 있었다. 가을이라 조석으로 서늘한 때였지만 옷을 다 벗어서 버리고 모포로 몸을 감고 식사를 타러 나갔다.

그렇게 해서 타온 밥을 먹지도 못하고 밧 한 그릇으로 팬티 하나와 바우고, 또 이틀남 밥 한 그릇으로 런닝 하나와 바꾸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이 지나서야 복정을 다 갖출 수 있었다. 포로로 수용되어 있는 자들이 한참 먹을 시기인 젊은 사람들이지만 적은 급식량으로는 항상 배가 곪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웃과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설사는 해서 퐁을 누울 수 없어 다행이었으나, 앞치대 달친 격으로 그만이야 이질을 앓게 되었다. 몸이 급격하게 허약해져서 회복되지 않고 밥을 먹지만 하면 그대로 설사로 나와버리는 고로 얼굴과 몸 전체는 뼈만 앙상히 남



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전황이 한국군에게 불리하게 변해 국군은 중공군에 밀려 남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국군은 포로들을 화물열차에 꽂아놓은 신트 잔뜩 실어서 이송했다. 주변 포로들의 어깨동무로 부족 받으며 가까스로 기차를 타고, 고통으로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인천에 도착하였다. 완전히 탈진된 몸으로 열차를 내려오기가 곤욕이었다. 가까스로 내려서 수용소를 가는 도중에 영등포 부근에서 과일가게를

지날 때, 어떤 포로가 일부러 사과 상자를 발로 차서 사과가 땅바닥에 여기 저기 많이 굴러 떨어졌다. 이사람 앞으로 사과 한 개가 굴러오기에 쟁쟁하게 가서 먹었다니 정신이 펴득 났다. 그 당시 이 사람은 사과가 그렇게 사람 몸에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천에서 이동할 때는 이 사람의 고향이 김포라서 이 지역 지리를 훤히 아는 고로 여기서 탈출을 시도하면 성공할 것 같았다. 그렇지만 시도해 보려

해도 너무 몸이 쇠약해져 있는데 이질이 낫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저히 탈출을 할 수가 없었다.

포로의 처참한 신세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또한 도망가기를 잘하는 이 사람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병고(病苦)로써 탈출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 탈출하게 된다면 포로들이 계속 후퇴하며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도망을 가도 살 확률이 극히 적었던 것이다.

전세(戰勢)는 점점 불리하여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던 고로, 또 다시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화물열차에다 몸을 싣고 포로들과 함께 남으로 달리게 되니 고향 김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니 현실이 암담하였다. 여기서 도망 못하면 앞으로는 더욱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감으로 달리는 화물열차에서 철길 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나 피골(皮骨)이 상점하고 쇠약한 대로 쇠약한 몸인지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로 다시 그 몸을 재빨리 짚어지고 가다가는 또 쓰러지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은 당해 본 자가 아니면 그 쓰러린 심경과 고통을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다.*
의무실이였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 가야수용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용소를 건설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폭탄에 부서져 어지럽게 널려진 파편 물건들을 치우고 옮기는 일을 하였다. 포로를 지키며 감독하는 미군들에게 개나 돼지와 같이 취급받으며 노동을 하였다. 몸이 아픈 사람이거나 성한 사람 상관없이 포로들을 때리고 가혹하게 작업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이질에 걸려 기운도 없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조금도 사정을 비주지 않았다. 빨리빨리 행동하지 못한다면 굶주림에 채이고 총 개머리판에 얻어맞는 고통을 당하였던 것이다. '갓랩(God Damn)' 하고 소리 지르며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데 몸이 아프다는 표시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쇠약한 몸을 끌고 무거운 물을 운반하다가 쓰러지면 쫓아와서 매를 가하는 고로, 다시 그 몸을 재빨리 짚어지고 가다가는 또 쓰러지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은 당해 본 자가 아니면 그 쓰러린 심경과 고통을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다.*